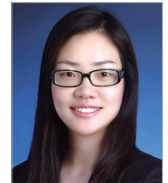


전통수의학에 대한 이해

경락학설經絡學說(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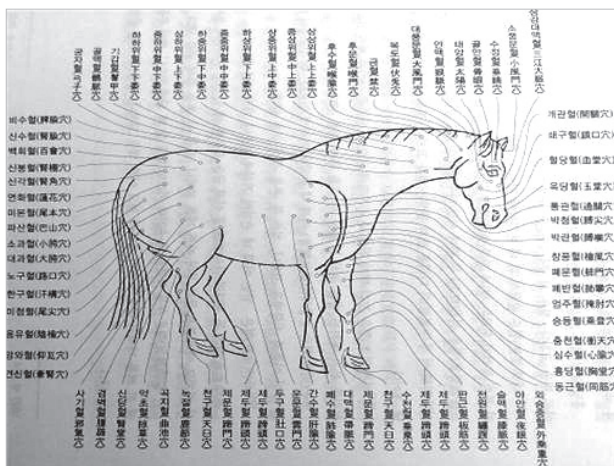


강 무 속
 동물제종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우리 선조들은 우연히 신체의 어느 부위를 두드리거나 돌멩이로 맞아서 기존에 있던 병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게 되었다. 이 포인트를 혈, 경혈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혈들이 같지 않은 작용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다. 이것을 몇 개 계열로 분류하게 되었고, 문제가 있는 부위에 따른 질병 발생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 이를 조금 더 발전시켜 12경맥의 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경락과 경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1. 경락과 경혈

경락은 몸속에 있는 장부 및 조직, 기관을 외부와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고 기혈은 경락을 통해 순환한다. 경락은 서양의학의 신경계, 혈관계, 림프계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경락은 체내의 순환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이곳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혈명도 (출처 : 마경언해,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러 이름으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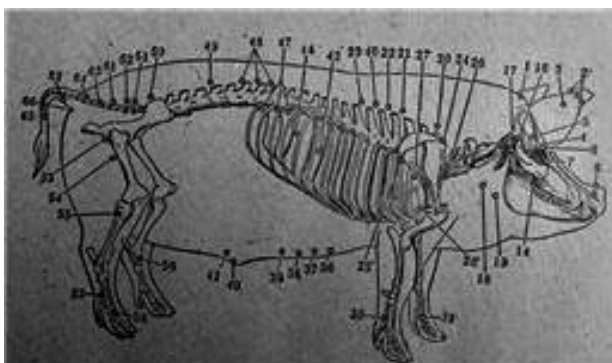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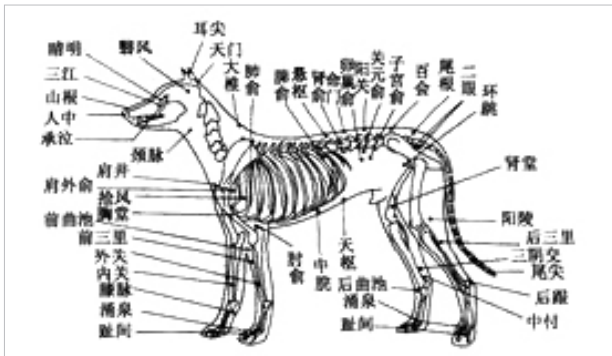
경혈에는 14경혈과 경외기혈經外奇穴, 아시혈 등이 있다. 14경혈은 경락의 체표면에 분포된 혈자리의 총칭으로, 12경맥十二正經의 경혈과 기경8맥奇經八脈 중의 임맥任脈과 독맥督脈의 경혈을 합하여 14경의 경혈로 이루어진다(수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혈들이다).

경외기혈은 14경의 경혈 이외에 질병 치료과정 중에 경험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혈자리를 말하며, 일정한 혈자리와 혈이름은 있으나 어떤 하나의 경락에 소속할 수 없거나, 소속되지 못한 혈을 모두 경외기혈이라 한다.

아시혈은 곧 압통점으로, 눌러보아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을 모두 아시혈이라 한다. 아시혈은 일정한 부위가 없기 때문에 부정혈不定穴이라고도 하였다. 아시혈도 치료효과가 확실해지고, 또 확실한 위치가 선정되어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 경외기혈로 다루며, 이 중 일부는 결국 경혈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경혈은 14경혈 361개와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형료마집 元亨口集》이라고 하는 고전 수의학서적에서는 79개의 혈위에 대한 기록이 있다. 현재 전통수의학에서 상용되는 경혈은 130여개 정도 되지만, 경혈의 명칭과 위치도 한의학에서 쓰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전통수의학 임상에서는 한의학에서 쓰는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고, 미국의 IVAS(International veterinary Acupuncture Society)나 중수의학(중국 전통수의학)에서 주장하는 경혈의 수량이 서로 다르기에, 전통수의학 관련서적을 보는 사람에게 혼동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관련

학회나 연구를 통해 표준혈위 같은 개념을 도입해 혈위와 혈명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개와 돼지의 골격과 혈자리(출처:중수의침구학,1960.농업출판사)

14경의 혈자리는 사지·몸통·머리 등 전신에 분포되어 있고, 사지의 안쪽은 삼음三陰으로, 바깥쪽은 삼양三陽으로 구분한다. 전삼음경前三陰經(=수삼음경)은 흉부에서 연결되는 관계로 흉부의 내장질환을 치료하고, 후삼음경後三陰經(=족삼음경)은 복부로 연속되는 관계로 복부의 내장질환을 치료한다.

전후삼양경前後三陽經(=수족삼양경)은 몸통과 머리의 전·후·측면 부위의 질병과 내과질환을 치료한다. 이러한 점은 경락과 장부가 상하 내외로 서로 상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혈은 바로 그 근처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경락이 통과하는 먼 곳의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

2. 특정혈特定穴

14경의 혈자리 가운데 그 성능에 따라 특정한 혈로 부르는 특정혈特定穴이 있다. 사지부위에는 오수혈五口穴·낙혈絡穴·극혈口穴·육총혈六總穴등이 있고, 몸통에는 장부의 수혈口穴·모혈募穴·교회혈交會穴 등이 있다.

오수혈(五口穴)은 수족의 팔꿈치와 무릎 아래에 각각 정井·형榮·수俞·경經·합습의 다섯 종류의 특정혈을 말한다. 오수혈은 사지의 말단 부위에서 무릎과 팔꿈치 방향으로, 얇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물줄기에 비유하여 정·형·수·경·합이라 하였다.

12원혈十二原穴은 장부의 원기가 지나가고 머무르는 경혈로, 원혈은 원기와 연관되고, 원기는 삼초를 통하여 밖으로 퍼지는데, 그 머무르는 부위가 곧 원혈이다.

15낙혈十五絡穴은 낙맥絡脈에 소속되어 있는 혈자리이다. 12경맥에는 각각 하나씩의 낙혈이 사지 부위에 있어서 경맥을 연결시켜 주므로 낙혈에 의하여 12경맥은 서로 통하게 된다. 12개의 낙혈과 임맥과 독맥, 그리고 비장의 대락大絡까지 포함하여 모두 15개의 낙혈이 된다.

16극혈十六口穴은 경맥 내의 기혈이 굽이쳐 흐르다가 깊은 틈새 같은 곳에 모이는 곳으로서, 사지 부위에 있는 12경맥의 극혈 이외에 음교陰口·양교陽口·음유陰維·양유陽維맥에 각각 하나의 극혈이 있어 모두 16개의 극혈이 된다.

육총혈六總穴은 역대 의가들의 임상경험을 종합하여 치료 범위가 신속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진 6개의 혈로써 합곡, 열결, 위중, 족삼리, 내관, 삼음교 이다.

배수혈背俞穴은 오장육부의 기가 배부背部(=등)의 특정한 곳에 모이는 곳이다.

모혈募穴은 장부의 기가 흉복부의 특정한 곳에 모인 경혈을 말하고 보통 복모혈腹募穴이라고도 한다. 모혈은 장부에 가까이 있어서 장부의 질병은 흔히 모혈에 반응이 나타난다. 배수혈과 반대로 모혈은 흉복부에 있어 음에 속하고, 배수혈은 배부에 있어 양에 속한다.

8회혈八會穴은 장臟·부腑·기氣·혈血·근筋·맥脈·골骨·수髓의 정기精氣가 운행하는 도중에 모이는 곳을 말한다.

8맥교회혈八脈交會穴은 기경8맥과 통하는 경혈로서 사지에 분포되어 있다. 기경8맥 모두가 사지를 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2경맥과 교회하는 관계로 사지에는 기경과 통

하는 경혈이 있어 기경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에 적용된다.

교회혈交會穴은 하나의 경혈에 여러 경맥이 속하여 있는 것을 말한다. 여러 경맥이 하나의 경혈을 통과하게 될 때, 그 중 가장 중요한 경맥을 '본경本經'이라 하고, 다른 경맥을 '인경隣經'이라 한다. 교회혈의 작용은 일반적으로 그 혈의 인근 부위와 그 혈과 관련된 장부의 질병을 치료한다. 사지에 있는 교회혈은 그 국부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 서로 연결된 경락을 통하여 머리·몸통 및 장부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3. 다양한 침법

이런 경락과 경혈학설을 응용한 치료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침구와 추나推拿(=마사지)이다. 침구는 침과 뜸을, 추나는 외과적인 골격 교정술과 마사지요법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소동물의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침일 것이다. 침을 놓는 방법과 방식도 치료경험 축적과 이론 발달과 더불어 다양해져왔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체침·온침·전침·레이저침·약침 등이 있다.

체침體針(=백침)은 가장 오래 사용되어 왔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응용되어지고 있는 침법이다. 전신에 원하는 혈자리에 침을 놓고 20-30분간 유침留針을 한 후에 침을 뽑는다.

전침電針에서 침은 전선의 역할을 하는데, 전기적으로 절연체에 가까운 피부장벽을 뚫고 피하조직에 전기자극을 주기 위한 도구이다. 전침 기기는 의공학적으로 교류·직류·맥동류/저주파·중주파·고주파/대칭파·비대칭파/파형 등에 따라서 치료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전침을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전침마취이다. 전기침을 통한 마취법이라는 개념인데, 최초에는 전침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마취를 하는 시간내내 침을 잡고 침조작을 해주어야 하기에 나중에는 전침을 사용하게 되어 전침마취라고 하게 되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 분야에서 응용을 하고 있지만, 전침마취가 가지는 한계성 때문에 역시 널리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다. 수의학에서도 역시 전침마취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지만, 완벽한 마취보다는 통증 역치를 조절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마취의 수준보다는 안정, 보정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마취약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레이저 침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침 치료술의 일종으로, 1970년대 초 소련의 이뉴신(Inuyshin)등이 아주 미약한 레이저를 피부에 쬐었을 때 국소의 혈관 확장, 진통, 소염 작용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이후 중국을 비롯해 독일, 오스트리아 및 국내에서도 수종의 임상 보고 및 동물 실험 논문이 발표되었다.

레이저침의 치료 원리는 집중된 레이저 광선을 경혈에 쬐일 때, 경혈 부위에 레이저 광선 반응과 전자장의 자극 작용이 체내 경락 계통에 변화를 주는 것인데, 고르지 못한 기혈의 순환을 조절하고 생체 기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이저침의 대표적인 장점은 통증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침치료 때에는 어느 정도 통증이 따르지만, 레이저침은 약간의 짜릿한 감각이 있을 뿐 통증은 없다. 또한, 시술 후 쯤인 부위에 흔적이 남지 않으며,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므로 안전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그밖에도 사용이 간편하고 시간이 단축되며, 자극의 정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약침藥鍼은 수침水針, 또는 혈위주사요법이라고도 한다. 경락학설에 따라 약물을 경혈에 주입하여 침과 약물 작용을 통하여 치료를 하는 것인데, 침 자극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특정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매우 적은 양의 약물로도 양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봉침도 약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온침溫針은 침병에 썩뜸용 썩을 붙여서, 그 열기가 침을 타고 내부로 전해지게 하는 침법을 말한다. 소동물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

현재 소동물 임상에서는 한 가지 침법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침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나타난 환축에게 전침과 약침을 병행처치하여 좋은 효과를 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많은 경험의 축적과 이론적인 연구가 병행되면 좀 더 많은 치료법으로 환축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